

기고



박원국 무안소방서 서장

주택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 화재경보기

최근 주택용 화재경보기로 소중한 인명을 구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올해 3월 9일 이른 아침인 8시경 무안군 해제면 한 연립주택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분께서 피요양인을 돌보기 위해 방문했을 때 평소 방문한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집안에 들어가 거동이 불편한 88세의 할머니가 연기 속에 갇혀 있어 구조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무사히 구조되어 일상 생활을 하시고, 집안도 주변 이웃들의 도움으로 깨끗이 정리되었지만, 당시 할머니를 무사히 구조하신 분들이나 내 일처럼 소화기를 들고 와 준 이웃들의 도움이 무척 고맙습니다. 더불어 화재경보기가 있었다는 것도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니

다. 하마터면 1층 보일러실에서 난불이 4층 건물까지 번지지 않았을 까 기습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연 평균 화재는 4만건이 넘지만, 주택화재는 1만1천여건으로 비율은 27.8%이지만,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자 발생 비율은 모든 화재 대비 54.9%로 2배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도 전체 화재 사망자는 91명이었지만, 주택 사망자는 63명으로 여전히 높은 비율(69.2%)을 보였고, 60세 이상이 57%, 취침 시간대인 0~6시 사이 발생이 48%로 가장 높았습니다.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나 규모가 큰 화재의 공통점은 화재 인자가 늦다는 것입니다.

처마 위까지 화염이 올라오는 상태를 가장 왕성한 최성기 화재로 분류합니다. 최성기에 다다르기 전에 일찍 알았다면 필시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발견했다면 화재라고 부를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화재경보기는 취침으로 화재 인자가 곤란한 취침시간대에 위력이 발휘됩니다. 집집마다 방방마다 설치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2012년 소방법령을 개정해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2012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주택도 현재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가도 1만원 내외로 매우 저렴해져 구입 조건도 매우 좋아졌고 10년 정도 쓸 수 있는 배터리 방식

으로 전선 연결도 필요 없어, 초보자라도 2분 이내면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화재에 대비한 가성비 최대의 보호 장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언론의 효과인지 과거보다 흔해졌던 느낌이 듭니다만, 이웃에 관심을 갖고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일입니다. 이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제도 도입이 10년차에 들어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는 주택 화재가 많다는 것은 현장에서는 아직도 길길이 떨리고 느껴집니다. 주택화재 사망자는 연 평균 180여명 수준입니다만, 2024년 이후 1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 달성에 든든한 지원군이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될 것입니다. 경보기 설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느 소방서라도 문의를 하면 친절할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지금 행동으로 옮겨 보세요.

기고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빛'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가 많이 위축되고 전국민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옵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은 불에 의한 사망보다 연기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화재 시 농연으로 인해 시야가 잘 보이지 않고, 패닉상태에 빠져서 비상구가 있어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상구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불법 적재물 등 장애물들을 제거해 놓아야만 대형화재에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같은 경우에도 비상구 앞에서 일어난 참사는 전 국민에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생각한

안전불감증들이 재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국 소방서에서는 비상구폐쇄 등 불법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에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방화문 폐쇄·훼손 및 물건 적치 ▲소화펌프, 수신반 등 소방시설 고장 상태 방치 ▲소화수 방출 차단 및 자동 작동 불가능 상태 방치 등이 있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월간 30, 연간 300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형철/순천소방서왕조119안전센터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봄철 농기계 사고 한순간 방심에서 시작된다

완연한 봄을 느끼게 하는 시기가 되면서 한해의 결실을 좌우할 분주한 농번기가 시작되었다. 봄철이 되면서 농민들이 들녘에서 농사일을 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면서 요즘 도로변을 운행하는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등 농기계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농도인 전남 지역이 갈수록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에 따른 농기계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봄철 농사 준비를 맞아 안전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날씨가 풀리면서 봄철 한해

농사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5-6월에 농기계 사고를 각별히 주의할 시기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농촌지역 도로 여건상 자동차와 농기계가 도로를 같이 주행하는 형태이다 보니 곳곳에 사고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차선을 가로질러 농사를 짓는 농촌 지역 동네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에 있다. 여기에 농기계 주 운전자들이 고령의 노인들이다 보니 농기계 조작

이 힘들어 사고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도 사고 급증의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농촌지역 도로 일부분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다 보니 야간에 자동차가 앞서 주행중인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경우도 있다. 농기계 사고는 구조상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경운기 등 농기계를 운전하는 내가 먼저 주의하고 예방

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사고 예방법이다. 운전자 또한 시골길에서는 서행운전을 생활화 할 필요가 있다. 매년 농번기철이 되면 급증하는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일몰 이후에는 농기계 운영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야간 반사경이나 야광 페인트를 칠해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한편 후방 확인이 안될 정도로 적재함에 많은 물건을 싣는 것도 주의해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김덕형/장성경찰서정보안보외사과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like 1577-1366, 1399, 182, etc.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Includes contact info for editorial, circulation, and advertising departments.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